

한전공대 연관기업·연구소 건축비 지원 조례 추진

전남도의회,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25% 지원 검토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형평성 논란도

한전공대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소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최명수(민주·나주2)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전공대 연관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건축비 25%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 등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5조의 2) 등을 근거로 혁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등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해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라는 고시에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가칭 '빛

가람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조례'를 제정, 혁신도시의 조속한 활성화를 지원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전공대 설립에 맞춰 관련 연구시설,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가 건축비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시 등을 들어 국가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미 한전공대 운영비로 매년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고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한데다,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을 감안한 조례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9~10월 열리는 의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 지원 규모, 지원 기업 범위 등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의 연관 기업이 조기에 정착,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 중"이라며 "전남도, 나주시 등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폴리'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2015년 푸른길공원 이어 두번째

'광주폴리' <조감도>가 올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재)광주비엔날레가 공동 추진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 '광주폴리'가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등 4개 기관에서 공동주관하는 '2019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 등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이에 따라 '광주폴리'가 건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셈이다.

광주시의 본상 수상은 지난 2015년 광주 푸른길공원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는 2011년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태동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 I·II·III 등 30개 작품의 취지와 성과, 민선 7기에 추진 중인 광주 상징 조형물인 관문형 폴리(광주폴리IV)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평가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광주 폴리를 오랜 기간 동안 도시의 공공건축과 공공조형물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광주시의 의지와 단순 조형물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보기도 문 작품으로, 다른 도시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폴리사업은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대통령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23일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 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목표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세종호수공원, 순천만국가정원, 군산 근대문화, 제주 올레길, 서울 한강공원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막 '2019 전라남도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지난날 30일 오후 무안군 현경면 무안종합포차파크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 이용재 도의회 의장, 장석용 전남교육감, 김산 무안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향아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 먹거리 찾아 광폭 행보

서남해안 관광벨트·한전공대 에너지 생태계 조성 동분서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곳곳을 돌며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한전공대를 주축으로 한 지역 에너지 연구 생태계 조성,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그리스-러시아-오스트리아를 찾아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유지를 통한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 등을 모색한다.

김 지사는 이 기간, 러시아 스크코보 재단을 방문해 한전공대와의 협력 방안을 타

진할 예정이다.

러시아 스크코보 재단의 경우 스크코보 과학기술대 및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그리스에서는 주지사와 조선업체를 찾아 조선산업 협력방안을,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안느-마가렛 간초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31일에는 '블루 투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인 서남해안 경관숲 밑그림을 구상하기 위해 장흥 일원에 조성된 숲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블루 투어'는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중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블루 투어' 기반 조성을 위해 서남해안의 섬, 해안, 해수욕장 등에 조족 방패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30억원이 반영됐으며, 2029년까지 10년간 4000억원을 들여 영광군부터 광양시에 이르는 15개 시·군에 3000여ha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블루 이코노미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가 새년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전남도는 1일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9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한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로 이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프로젝트에 대한 콘텐츠 및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9월 한달간 접수해 10월 1차 서면심사, 11월 중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전남지사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상반기 중기제품 우선 구매 1조7천억

목표액 55.2% 차지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에 따라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 3조2229억 원의 55.2%인 1조7794억 원 어치를 상반기에 구매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14년부터 추진해온 시책이다. 도, 시·군, 출연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상·하반기 2회 누리집에 구매 실적을 공시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총구매액 대비 전남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71.2%였으나, 2015년 83.3%, 2016년 83.6%, 2017년 84.7%, 2018년 86.8%로 구매비율이 점차 확대돼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전남도청의 경우 구매율이 79.3%를 기록, 지난해(75.2%)보다 높았다. 이는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2019년 도내 중기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3조6718억원의 87.8%인 3조2229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16개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전남도교육청, 농협·광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계약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기간 간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	---------------	---------------	----------------	---------------	---------------